

#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해 나갈 것” 노후 육내급수관지원사업 완료

무주군, 추진 의지 표명... 전담팀 구성해 행정절차 이행 계획

무주군이 27일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의지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들을 만난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가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안타까운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침체 일로에 있는 무주지역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라며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정비, 관련 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는 대로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주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규제를 묵묵히 감수해 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지속 가능한 무주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고, 군민들에게는 기본소득만큼의 여유를 불어넣고 지역에는 활기를 채우는 사회보장제도”라며 “무엇보다 무주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환류되는 선순환의 토대 위에서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실행할 수 있는 농촌형 기본소득의 선도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주군이 27일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의지를 발표했다.

이러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를 딛고 일어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 모든 삶이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무주형 기본소득이 우리 군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생활의 기본이 보장되는 '무주형 기본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무주군 기본사회'

추진 전담팀을 구성해 기본소득을 포함한 돌봄과 교육, 주거, 교통, 의료, 에너지 등 기본 서비스 관련 업무 추진에 돌입할 계획으로, 기본소득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군민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 도출, 시행 계획 마련 및 조례 정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기재부 찾아 핵심 SOC 사업 예산 지원 건의

무주군이 지역 교통 접근성 향상과 영·호남 연계 강화를 위한 국가 도로망 확충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건설·환경 분야 담당 공무원들은 27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과 경제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만나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 2차로 개량 사업 등 핵심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은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무주 무풍~김천 대덕(국도 30호) 2차로 개량 사업 및 무주 설천 심곡~두길(국도 37호) 2차로 개량 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국가 도로망 확충은 단순한 SOC 확장 사업이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열쇠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지역 간 연결성과 접근성을 높여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을 실현하는 기반”이라며 “무주의 주요 현안 사업이 국가계획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군은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3단계, 총사업비 43억 원)과 △무주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총사업비 187억 원)에 대한 국가 예산지원도 요청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모두다함께! 다아울림 명랑운동회’ 성료

장수군은 지난 25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장수군가족센터(센터장 홍선희) 주관으로 '제3회 모두다함께! 다아울림 명랑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랑운동회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줄다리기 등 흥미로운 경기와 협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족 간 유대감은 물론 세대 간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 한편에는 포토존이 마련돼 참여 가족들이 웃음과 추억을 사진으로 남겼으며, 팔찌공예 체험 부스도 운영되어 가족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깨끗한 수돗물 공급 기반 마련

진안군은 2025년도 노후 육내급수관 개선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육내 급수관으로 인한 누출 발생과 수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해 세대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며 5세대의 육내급수관을 교체 완료했다.

특히 육내급수관은 가정 내 수도물의 최종 공급 구간으로, 아무리 정수된 수도물이라도 배관이 낡으면 누출과 이물질이 섞여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 △(2순위) 육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순위) 2000년 이전 준공된 주택 등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주택은 우선 지원하고 있다.

군은 올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지원 대상을 20세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차 사전 조사를 추진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대상 세대를 추가 발굴하고 지원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인문학으로 잇는 지역·공동체’ 인문주간 개최

무주군은 27일 무주상상반디숲에서 인문 주간 개막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와 함께 마련했으며, “다시, 잇다 - 인문학으로 잇는 지역과 공동체”를 주제로 △창공 밴드와 M문화예술단 공연, △다큐멘터리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 초청 강연 등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인문 주간은 오는 11월 2일까지 이어지며, 무주상상반디숲을 비롯해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김원태문학관 등지에서 '무주의 자연과 생태, 공동체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생태환경을 활용한 음식 만들기 체험, 생태 탐



방, 지역 예술 체험 등의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여성친화기업 네트워크 강화 간담회 가져

장수군은 지난 24일 여성 취업 활성화와 기업 간 교류 강화를 위해 '여성친화기업 네트워크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내 여성친화기업 대표와 인사담당자, 장수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해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과 기업들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여성 근로자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간 유대 강화와 참여 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해 원예테라피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직접 화분을 꾸미며 심신을 힐링하고 서로의 경험과 교민을 공유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여성친화일촌기업은 장수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했거나 채용을 약정한 기업체로 관내 20개 업체가 참여하여 고용양성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진안군은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줄이고 지주채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징수추진단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하며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현장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25년 하반기에는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간인 만큼 해당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동산 압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군세입점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마이하당  
설채현 수의사 초청 강연

진안군은 27일 군청 강당에서 설채현 수의사를 초청해 마이하당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반려동물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반려동물과 소통하는 행복한 삶을 통한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로 유명한 설채현 수의사는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동물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모습으로 반려인들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이날 설채현 강사는 즐거움을 위한 소유물이 아닌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